

『페어리 여왕』 1권: 성결의 덕과 자기인식*

이진아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자기무지: 자기인식의 시작
- III. 욕, 세상, 악의 유혹: 자기인식의 적
- IV. 관상: 자기인식의 완성
- IV. 글을 나가며: 자기인식의 지속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의 『페어리 여왕』(*The Faerie Queene*) 1권 「레드크로스 기사 혹은 성결의 전설」(“The Legend of the Knight of the Red Crosse, or of Holinesse”)에서 레드크로스의 모험을 자기인식(self-knowledge)의 관점에서 조망하여 자기인식이 성결의 덕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네 자신을 알라”(GK. gnothi sauton)는 자기인식의 권고는 신탁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델포이(Delphoe)의 아폴로(Apollo) 신전 입구에 쓰여 있는데, 푸코(Michel Foucault)는 이 권고가 서양 철학의 고전적 지혜를 집약하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윤리 원칙이라 간주하였다. 그는 이 격언이 삶과 유리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권고라기보다는, 신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신탁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할 규칙”으로 “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혹은 “신탁을 받으러 올 때는 네가 진정 무엇을 청하고 있는 지 인식하고 있어야”(19-20) 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권고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고전 윤리철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학에서 인간의 자기인식 혹은 자기이해는 기본적으로 신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를 위한 것이다. 이후 그리스도교도 신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인간의 자기인식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자기인식, 자아에 대한 관심이 르네상스 이후 특히 데카르트 이후 시대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중세 시대에도 자기인식과 그 주체인 자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¹⁾ 고전 저술들이 새롭게 발굴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자기인식에 대해 관심이 전반적으로 깊어 윤리적 저술들이나 문학작품들은 이 주제를 계속 다루었다(Schollner, “Introduction” xi-xii). 자기인식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이 신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성결의 여정에서 가져야할 필수 불가결한 지식이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생활의 기초로 간주되어왔다.

스펜서는 『페어리 여왕』에서 문학을 통해 귀족 독자들을 윤리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안한 열두 가지 덕목들”에 상응하는 덕들을 서사적 알레고리로 구현한다고 저술 의도를 밝힌 바 있다(“Letter to Raleigh”)²⁾. 시인의 의도대로 이 작품이 서양 고전 윤리 철학 전통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덕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전반적인 도덕적 알레고리에서 자기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알레고리의 전 과정은 등장인물들이 “자신과 악마와 같은 또 다른 자신과의 투쟁의 산물인 자기인식(self-knowledge)과 그에 수반되는 자아성(selfhood)”을 획득하는 것을 재현하고 있다(McCabe 63)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교도 시인 스펜서가 모든 덕의 기초로서 가장 먼저 다루는 성결의 덕에서 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신과의 궁극적 일치를 위해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인식이 특히 중요한 요소임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그렇게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1권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자기인식의 주체는 단편적으로 언급되거나 다루어졌을 뿐³⁾ 비중 있게 혹은 성결의 덕 전체를 조망하는

1)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자기인식에 대해 연구한 Cory, Lambert 참조.

2) 이후 본 논문에서 스펜서의 『페어리 여왕』, 「롤리 경에게 보내는 편지」로부터의 인용은 *The Faerie Queene*, ed. A. C. Hamilton으로부터 하며, 제목의 표기는 본문에서 생략하고 권.칸토.연.행 만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또한 논문에서 인용된 스펜서 작품의 번역은 필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3) Blythe가 1권의 칸토 4, 5를 다루면서 칠죄종(seven deadly sins)과 절망(despair)

관점에서 연구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레드크로스의 모험의 내러티브를 축약적 차원에서 세세하게 주목하여 그의 “어두운 기상”(darke conceit)과 같은 자기 무지, 명료한 자기인식의 결핍 상태를 조명하면서 그의 자기인식이 성결의 덕의 본질적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자기무지: 자기인식의 시작

스펜서에게 있어서 성결과 자기인식의 불가분의 관계는,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Jean Calvin)의 사상을 잠시 살펴볼 때 잘 드러난다.⁴⁾ 칼뱅은 그의 초기 저술, 『그리스도교 요강(要綱)』(*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신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사도 신경에서 다루는 내용의 순서대로 하느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 교회 이렇게 네 주제로 나누어 탐구하고 있다. 그는 일권에서, 신을 알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하며 자신을 아는 것은 곧 신을 알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며 신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의 불가분의 관계를 제일 먼저 역설한다. 그러므로 스펜서가 신과의 관계에서 일치로 나아가기 위해 인간이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성결의 덕에서 인간의 자기인식과 신과의 일치를 불가분의 관계로 다루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레드크로스의 자기인식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할 점은 스펜서가 인간에 대해 가진 보편적 인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레드크로스의 성결에 필수불가결한 인간의 자기 인식의 내용은 당연히 스펜서의 인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1권의 후반부에, 용과의 전투를 제외하고

과 자기인식과의 관계를 언급하였고, Summit이 1권 칸토 10의 관상(Contemplation)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관상을 통해 레드크로스가 얻는 자기인식과 랭런드(William Langland)의 농부 피어즈의 자기인식을 연결시킨 바 있다. (Gerard) Morgan은 자기인식의 관점에서는 아니지만 존스럽고 무지한 레드크로스가 농부 피어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454-58).

4) 스펜서에게 있어서 칼뱅의 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Morgan) Padelford, Whitaker, Hadfield를 참조.

레드크로스의 많은 모험들이 끝난 후 그의 모험 과정을 마치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육신의 힘을 과시하고,
죽을 목숨을 헛되이 장담하지만,
영적인 적들과 싸우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너무도 빨리 바로 굴복하거나,
전장에서 가장 비겁하게 도망쳐버리니.
어떤 인간도, 은총을 통해 얻은 승리를
자기 능력의 것으로 삼지 말라.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마 있다면, 그것은 악으로 기우는 것,
하나 선한 것은 모두 하느님의 것이네, 능력과 의지 모두.

What man is he, that boasts of fleshly might,
And vaine assurance of mortality,
Which all so soone, as it doth come to fight,
Against spirituall foes, yields by and by,
Or from the fielde most cowardly doth fly?
Ne let the man ascribe it to his skill,
That thorough grace hath gained victory.
If any strength we haue, it is to ill,
But all the good is Gods, both power and eke will. (1.10.1)

아마도 이 연은 『페어리 여왕』 전체에서 칼벵의 영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일 것이다. 칼벵에 의하면, 인간은 육적인 판단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육적인 능력을 과신하여 “용기를 내어 덕을 이루는 행동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악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명예와 공정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그리스도교 요강』 2.1.3). 그러나 인간은 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서 확신을 가질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신을 향한 의지조차도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점점 커가는 낙심만이 남아 있을 뿐임을 발견한다. 즉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스스로 자랑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온전한 타락 혹은 허무의 상태임을 발견한다. 따라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자기인식이란 자신이 가진 놀라운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신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에 대한 인식,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그 안에 비뚤어지고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기”(2.3.1) 때문이다. 인용한 연의 첫 5행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적들, 즉 자기인식의 과정에서 인간이 직면해야 할 본질적인 적대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3대 적들은 죽을 인간이 사랑하는 힘인 육(flesh), 인간이 싸워야 할 적인 악(evil, devil), 그리고 육과 악이 창궐하는 세상(the world)이라 할 수 있다. 이 적들과 인간이 싸운다 하더라도, 첫 인간인 아담의 타락이후 그 후손은 모두 그의 원죄의 상태, 비참함(wretchedness)을 물려받았고(2.1.5), 이 허무의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스펜서는 10권에 이르기까지 레드크로스의 삶을 성찰하며 이와 같은 칼뱅적 인식에 도달하는데, 이 인식은 결국 그때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며 자신이 목적인 것을 추구해온 레드크로스 자신의 자기인식이기도 하다.

레드크로스는 모험들을 통해 스펜서가 칸토 10에서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칼뱅주의적 인식을 깨달아 간다. 1권은 그가 자신의 육, 세상 혹은 세속, 악에게 유혹당하여 굴복하면서 신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자기인식의 과정을 알레고리 화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그의 자기무지이다. 그가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은 우선 스펜서가 그의 이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펜서가 계승하고 있는 중세 기사도 로맨스 전통에서 주인공들은 대부분 자신의 참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을 시작하고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높은 신분을 밝히거나 인지한다. 중세 로맨스의 이 자기 정체성의 회복 과정을 레드크로스도 겪는다고 할 수 있는데, 중세 로맨스의 기사들과 달리 그는 알레고리적 주인공으로 그의 언행들은 명백한 알레고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모험 과정은 중세 로맨스 기사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나가는 과정 뿐 아니라 성결이라는 종교적 덕의 완성을 알레고리 화하고 있으며 그가 마지막에 얻는 자기 인식은 단순히 자기 신

원확인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삶과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다. 레드크로스의 참 신원과 정체성은 칸토 10에 가서야 드러나지만, 처음 모험을 시작했을 때 사실 그가 신원 미상의 존재는 아니다. 그는 지오르고스(Georgos)란 이름을 가진 농부의 아들(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농부가 밭에서 주워온 양아들)이다(1.10.66). 또한 레드크로스도 자신이 지오르고스라고 알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원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에 대해 모르는 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인식조차 잘못된 상태에서 성결의 수호기사로서 모험을 시작한다. 스펜서가 그의 참 신원이 밝혀질 때 까지 그의 이름조차 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모험 과정이 그의 신원, 정체성을 포함한 자기 인식의 과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골뜨기라 보다 높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느”(vnfite through his rusticity for a better place) 이 젊은이가 모험을 나서는 첫 모습은 그의 걸음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진정한 모습 간의 괴리를 강하게 시사한다. 화자는 첫 두 연에서 그리스도인 기사로서 자격을 갖춘 듯한 레드크로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두 연의 거의 마지막에 “seemd”(1.1.8), “seeme”(1.2.8)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말과 행동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는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종교적 표지도 아직 그의 진정한 신원을 제대로 알려주는 상징이 아니다. “스펜서의 레드크로스는 선택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다.”(Heale 21) 혹은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Leslie 102), “프로테스탄트적 범인(凡人)”(King 209)이라는 것이 레드크로스의 알레고리의 보편적 의미에 대한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그와 같이 선택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지막 전투인 용과의 전투 첫 날 “생명의 샘”(the well of Life, 1.11.29)에 잠기어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난 기사”(34.9)가 된 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모험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리스도교 신앙인처럼 보이는 그의 외관은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 괴리는 화자가 설명하는 레드크로스의 모험 목적에서도 드러난다. 이미 “진정한 성결의 수호자”(The Patrone of true Holinesse, 1.1.argument.1)라고 불린 레드크로스의 모험 목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결에 있지 않다.

그는 페어리 나라의 저 가장 위대하신 여왕,
 저 가장 위대하신 글로리아나께서
 맡기신 위대한 모험을 하러 가는 중인데,
 사람들의 숭배를 얻고 여왕의 은총을 입는 것이,
 지상의 모든 것 중에서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다.
 계속 말 달려가며, 그의 마음은 멋진 전투에서
 적에 대하여 전투 능력을 입증하고,
 새 힘을 보이기를 열망하였다.
 그의 적, 소름끼치는 무시무시한 용에 대하여.

Vpon a great aduenture he was bond,
 That greatest Gloriana to him gaue,
 That greatest Glorious Queene of Faery lond,
 To winne him worshippe, and her grace to haue,
 Which of all earthly things he most did craue;
 And euer as he rode, his hart did earne,
 To proue his puissance in battell braue
 Vpon his foe, and his new force to learne;
 Vpon his foe, a Dragon horrible and stearne. (1.1.3)

이제 막 모험을 시작한 레드크로스는 매우 현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부로서 육체적으로 단련된 그는 “한창 무르익은 힘”(forces pryde, 1.10.66.7)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to seeke for fame, 1.10.66.8) 모험을 하고 싶어 한다. 기사도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에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사도적 가치들은 전통적인 위계질서와 범접할 수 없는 군주의 최고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고 신하들에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통해 용기와 야망을 표현하도록 고무하였다(Gary 98-99). 그런데 문제는 성결의 수호기사인 레드크로스과 그의 모험은 성결의 덕의 성격상 이러한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기사도 정신의 가치를 넘어서는 차원의 가치, 즉 신과의 관계에서 부여할 수 있는 천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레드크로스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엘리자베스 시대의 기사도 정신이 예찬하는 이상적 가치가 그 지상적 차원을 넘어 천상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거나 구현해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의 힘”만을 과신하며 명예와 존경, 그에 따르는 권력을 추구하고, 그 영적인 차원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과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도 없이 모험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곧 만나게 되는 위선 자체인 아키마고(Archimago)의 위선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⁵⁾ 따라서 레드크로스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자기 위선에 직면하면서 참된 자신을 알아갈 것인데, 로즈(Mark Rose)가 주장하듯이, 그것이 독자가 이 기사의 모습과 경험을 읽으면서 배워야할 교훈이다(2).

III. 육, 세상, 악: 자기인식의 적

육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은 쉽게 육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육은 인간이 진정한 자기인식을 통해 얻어가는 성결에 대적하는 세 가지 적들 중 하나이다. 노동으로 단련된 젊은 육체의 혈기왕성한 힘을 가진 레드크로스의 자신감은, “용맹의 박차로 자극을 받아”(prickt with courage, 1.10.66.7) “박차를 가하며”(pricking, 1.1.1) 말 달리는 첫 장면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로 맨스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대담하고, 용감하며, 자신의 힘 때문에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Rose 8). 그의 이 육적인 자신감은 에러(Error)의 동굴에 자신의 힘만으로 들어가려는 경솔함(1.1.11-12)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다. 그는 “불같은 기세와 탐욕스런 배짱으로 가득 차”(full of fire and greedy hardiment, 1.1.14.1), “지나치게 경솔한”(too rash, 1.1.12.2) 태도로 예러와

5) 아키마고가 레드크로스와 우나를 갈라놓은 후 레드크로스의 차림새를 하는데, 이 대목에서 레드크로스와 아키마고가 혼란스럽게 중첩되는 모습은 각 인물 속에 서로의 요소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But he the knight, whose semblaunt he did beare,
The true *Saint George* was wandred far away,” (1.2.12.1-2).

대결하려 든다. 하지만 이 무모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 육신의 힘이 영적인 차원의 싸움에서는 “너무도 마치 그림자같이, 보잘 것 없는 희미한 빛”(A little glooming light, much like a shade, 1.1.14.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나(Una)는 위기에 빠진 레드크로스에게 그의 타고난 육신의 덕과 힘에 “믿음을 더하라”(Add faith, 1.1.19.3)고 충고하며, 그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신에 대한 의탁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게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우나의 지적은 지금까지 그의 자기인식은 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힘에 신앙의 힘을 더하여 어려움을 물리치지만, 그의 자기인식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한 자기인식은 곧 타인의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의 불완전함으로 나타난다. 그는 에리의 숲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지만, 곧 만나는 아키마고의 위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거짓 농간에 넘어가 우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하여 그를 버리고 떠난다. 이 상황은 레드크로스의 자기무지의 새로운 면, 즉 여성과의 관계와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한 그의 무지를 보여준다. 살펴보았듯이 작품의 서두에서 말을 타고 평원을 달리는 레드크로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육체적인 힘은, 그의 성적인 욕망과 힘의 열기를 암시하기도 한다(Hamilton 주 참조.). 그런데 혈기왕성한 성적 욕구를 가진 그의 사랑의 대상인 숙녀 우나는 과부처럼 차려입고 성적인 면을 모두 가리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1.1.4). 성적인 도발과는 거리가 먼 우나의 모습은 기사가 그에 대해 어떤 성적인 환상 조차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거나 억압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우나의 모습을 정숙함으로 간주한 레드크로스는 가짜 우나가 상복을 입은 채 정숙하지 못하게 자신을 성적으로 도발했을 때 매우 당혹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키마고가 그의 꿈속에서 우나에 대해 불러일으킨 “낮선 욕정의 엄청난 격정”(great passion of vnwonted lust, 1.1.49.1)은 여성의 성에 대해 억압되고 잠재된 그의 성적 욕망이 무의식 속에서 분출된 것이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한 그는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잘못에 대한 익숙한 두려움”(wonted fear, 2)과 “자신의 은밀한 악이나 숨어있는 적에 대한 의구심”(mistrust, / Some ill, or hidden foe of his, 3-4)으로 놀라는 데, 이

반응은 그가 자신의 성적 유혹을 억누르며 우나에게 행여 성적으로 실수할까 두려워 의식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암시한다. 결국 그는 아키마고가 만들어놓은 가짜 우나의 부정한 모습을 목격하고 진짜 우나를 버리고 달아나는데, 이는 그가 우나에 대한 자신의 성적 욕망의 실체에 직면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나에게 책임과 비난을 전가하는 행위로 보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은 “올바르고 성실하며 진실하다”(Right faithfull true, 1.1.2.7) 자기인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경솔한 불신”(rash misweening, 1.4.1.6)으로 “사랑에 있어 경박함과 변심”(lightnesse and inconstancie in loue, 1.4.1.8)을 쉽게 할 수 있는 인물인지 모르고 있다. 아키마고는 그의 그러한 자기인식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레드크로스의 성적인 욕망은 우나와 완전히 다른 차림새를 한 두에싸(Duessa)를 만났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두에싸는 선정적인 강렬한 진홍색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나타나, 위험에 처하자 동정을 사기 위해 꾸며낸 말로 기사를 속이며 상복 차림의 우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적 매력을 발산한다. 그는 그런 두에싸를 보고, 앞서 우나에 대한 성적 환상이 불러일으킨 것과 같은 종류의 “엄청난 걱정”(great passion, 1.2.26.5. Hamilton의 주석 참조.)에 사로잡혀 그의 눈은 두에싸의 얼굴을 훑어보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6)이다. 결국 그는 욕의 유혹에 굴복하여 “그의 무딘 귀”(his dull ears, 7)는 두에싸의 말의 진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고 만다.⁶⁾ 레드크로스는 산스포이(Sansfoy 혹은 Sans foy)를 무찌르고 그의 방패를 취득할 뿐 아니라 두에싸도 일종의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데, 이로써 일견 그는 전투의 승리하여 기사도적 명예와 성취를 이룬 듯이 보인다. 하지만 성결의 덕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앞서 에러와의 싸움에서 우나의 도움을 통해 터득한 “새로운 힘”(new force, 1.1.3.8)인 신앙의 힘(1.1.19.3)을 상실하고 다시 욕의 차원에서 영예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6) 『페어리 여왕』 5권에서 정의의 수호기사 아트갈(Artegall)은 거인과의 대결에서 울바로 듣는 귀는 참과 거짓을 가리는 판단력이라고 주장한다.

And so likewise of words, the which be spoken,

The eare must be the balance, to decree

And iudge, whether with truth or falshood they agree. (5.2.47.7-9)

레드크로스는 자신의 육적인 힘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 욕의 욕망의 늪에 점차 보다 깊이 빠져들어 간다. 그는 두에씨의 “새 친구”(new friend, 1.1.27.2)임을 자처하면서, 두에씨와 친구 이상의 뉘앙스를 풍기는 관계로 발전하며 욕욕의 유혹을 즐긴다(1.1.30). 프라두비오(Fradubio)의 불행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두에씨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가 두에씨의 손에 이끌려 찾아가는 “죄로 가득 찬 교만의 집”(sinfull hous of Pryde, 1.4.argument 1)은 그가 빠져있는 죄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 교만은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로 인간이 신과 같아지려는, 신이 되려는 욕망, 신의 존재 없이 인간 자신만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교만의 집에서 벌어지는 “칠죄종”(Seven deadly sins)의 행렬(1.4.16-37)이 상징하듯이 교만은 그 밖에 모든 악들의 근원이기도 하다.

교만의 집에 온 레드크로스는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레드크로스의 그러한 상태는 외적으로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루씨페라(Lucifera)의 궁과 그 곳에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잘 드러난다.

사람들 모두 그 기사를 잘 대하며,
 기사와 더불어 자신들 무리가 늘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두에씨에게는 각자
 온갖 친절과 정중한 존경을 표하였다.
 그 궁 사람들은 그녀를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리 가운데에서 깨끗한 기사는
 기사도 정신으로 볼 때 그들의 영광이 모두 헛되고,
 낮선 기사에게 그다지 좋은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저 대(大) 여 군주는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다 생각하였다.

Goodly they all that knight doe entertayne,
 Right glad with him to haue increast their crew:
 But to Duess' each one himselfe did payne
 All kindnesse and faire courtesie to shew;
 For in that court whylome her well they knew:

Yet the stout Faery mongst the middest crowd
 Thought all their glorie vaine in knightly vew,
 And that great Princesse too exceeding prowde,
 That to strange knight no better countenance allowd.
 (1.4.15)

번쩍이는 보석과 장식으로 치장하고 연신 자신의 아름다움과 권력만을 의식하는 여왕을 알현하기 위해 사람들도 각자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들어 높이기 위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차림새로 단장하고 모여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보다 큰 자랑거리”(each others greater pride, 1.4.14.9)에 속상해하지만 겉으로는 서로 온갖 예의를 갖춘다. 레드크로스는 그들의 이러한 위선적 허영과 사치를 경멸하며, 칠죄종의 향연을 즐기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과 같이 “전투를 좋아하는 젊은이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far vnfit for warlike swaine, 1.4.36.9) 무리라고 생각한다. 일견 그는 이들과는 다른 가치,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허영과 사치와 위선 대신 그는 기사도적인 명예와 성취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며,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기사와 이 궁의 사람들은 추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육적인 자존감에 신경을 쓰고 그 자아의 확대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예러와 산스포이를 무찌른 후 더욱 커졌을 기사로서의 자존감을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며 아랑곳하지 않는 루씨페라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불쾌한 기색을 보인다. 또한 그가 아직 여왕이나 이 궁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무용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두에싸와는 다른 대접을 받는 것도 그의 불쾌함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루씨페라의 궁에서 상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가 모험을 떠날 때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의 “승배”를 받기 위한 길은 기사로서 전투에 이기는 길이다.

곧 레드크로스에게 “온전히 찬양과 명예를 위해”(all for praise and honour, 1.5.7.6) 싸울 기회가 주어진다. 산스 조이(Sans ioy)와의 전투는 그의 육적인 자존감은 회복시켜주지만 그가 성결의 기사로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세속에 굴복했음도 보여준다. 화자는 이 전투에서 “[산스 조이]는 불의를 위해, [레드크로스]는 의를 위해 싸운다.”(th'one for wrong, the other striues for right, 1.5.8.1; 9.1)고 두 번이나 강조한다. 하지만 적을 죽인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런 눈”(greedy eye, 1.5.15.1)으로 피에 “목마른 칼”(thirsty blade, 2)을 든 채 살기등등한 레드크로스의 모습은 그가 과연 의를 위해 싸웠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⁷⁾ 이런 모습으로 그는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수한 산스포이의 방패를 “[자신의 봉사의] 선물”(present of his seruice, 1.5.16.3)로 루씨페라에게 바친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을 무시했던 루씨페라로부터 큰 호의와 신뢰를 얻게 되고 “[자신]의 멋진 기사 정신을 크게 드높이며”(Greatly aduaucing his gay cheualree, 5) 상처 받은 자존심을 회복한다. 하지만 그는 산스포이의 방패를 교만의 여왕에게 바침으로써 자신의 불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리아나가 아니라 루씨페라를 섬김으로써 (지상이라기보다는) 세속의⁸⁾ 권력과 명예를 섬기고 있다. 따라서 교만의 집에서 행한 레드크로스의 기사도적 무용 행위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무시당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aduaucing”) 수단이 된다. 레드크로스는 “진리”(Truth, 1.2.argument 2)인 우나와 헤어진 후 욕욕의 유혹을 따라 욕적인 자아의 욕구를 좇으며, 『실낙원』 (*Paradise Lost*)에서 라파엘(Raphael) 천사가 아담에게 반역 천사들의 교만에 대해 평가하듯이, 자신의 힘으로 “자만심에서 나오는 허영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불명예로 /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것”(to glory aspires / Vain-glorious, and through infamy seeks fame, VI.384-85)이라 할 수 있다.

레드크로스과 산스 조이의 전투에 기사도 정신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
- 7) 그렇다면 화자의 말을 독자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이 문제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글 읽기 혹은 알레고리 읽기에서 화자의 설명과 그에 독자의 불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동적인 긴장은, 독자에게 더욱 면밀한 주의력과 심층적인 해석을 요구하여 독자의 알레고리 해석 능력에 도전이 될 것이다.
- 8) 레드크로스가 처음 모험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적이 지극히 “지상적인”(earthly, 1.1.3.5)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지상적”이란 천상적이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함축을 가지고는 있지 않다. 그러나 “세속적”(worldly)이란 지상이면서도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것은, 목숨을 건 그들의 전투를 일종의 놀이와 이야기 거리로 만드는 악사들, 음유시인들과 기록자들이 전투장에 가득하다(1.5.3)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목숨을 건 싸움의 장을 채운 이 놀이와 잔치의 분위기는 이들의 전투를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겉치레로 가득 찬 예식과 같은 것으로 전락시키고 기사도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한다. 레드크로스가 추구해온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 군주의 총애는 잠시 “그를 현혹시켜 고통과 고뇌를 앗아가는”(Him to beguile of griefe and agony, 1.5.17.8)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레드크로스는 자신이 루씨페라에게 봉사하며 얻은 세속적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 자신도 머지않아 성 뒤에 있는 “죽은 시체들의 똥 무더기”(A donghill of dead carcasses, 1.5.53.8)에 던져질 것을 하나의 난장이의 도움으로 알아차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수치스럽게 성의 뒷문을 통해 몰래 도망을 친다.

레드크로스는 세속의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하지만, 그의 자기인식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자신의 내면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간교하고 교활한 속임수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 그렇게 지혜롭고 ... 신중하지”(so wise ... so ware, / As to discry the crafty cunning traine, 1.7.1.1-2) 않다. 교만의 집에서는 도망쳐 나왔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내적으로 더 혼란해진 듯,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기사도적 목적도 상실하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인다. 그는 썸가에서 무장 해제한 채 성결을 위해 달려야 할 “경주 중간에”(in midst of the race, 1.7.5.4) 퍼질고 앉아 있다. 롤리 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듯이 레드크로스의 갑옷과 무기는 신앙의 주요 무기로(Ephesians 6)⁹⁾ 스펜서가 성결의 “알레고리의 주요한 매체로 사용하는”(Leslie 102) 것들이다. 기사는 불신앙 속에서 세속 권력과 영예를 추구한 결과,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 외적으로나마 자신의 모험을 영적인 차원의 의미와 연결시켜주던 갑옷과 무기를 치워버린 것이다.

“무장 해제하고, 은총을 잃은 수치에, 내적으로 퇴락한”(disarmd, disgraste, and inwardly dismayde, 1.7.11.6) 레드크로스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성결의 덕과 멀어져 있다. 그가 모험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나가

9) 해밀튼도 지적하듯이 스펜서는 5장이라고 잘못 밝혔다.

준 갑옷과 무기를 갖추어 외양은 그리스도교 기사였다. 하지만 에리를 비롯한 여러 적들과의 전투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는 사실 신앙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 이제 교만으로 인해 그는 자신을 적어도 신앙의 인간처럼 보이게 하던 표지마저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육적인 인간 지오르고스로 돌아왔다. 이렇게 영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영의 힘을 상실하고 그를 지탱해주던 인간적인 덕의 힘마저도 약해져서, 그는 육의 힘에 더욱 강하게 사로잡히고 다시 만난 두에싸와 성적으로 방탕한 놀이를 즐기며 영혼과 육신의 기력을 탕진하고 만다(1.7.6-7).

이렇게 완전히 육에 굴복한 레드크로스는 육이 가장 타락한 상태라 할 수 있는 모습과 직면하게 된다. 영육의 힘이 기진했을 때 그를 덜친 오르고글리오(Orgoglio)는 지오르고스라는 이름을 가진(1.10.66.6) 레드크로스와 묘하게도 닮은 점이 있다. 지오르고스는 “geos + orge”(earth + till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Hamilton의 주 참조.), 레드크로스는 육의 기원인 흙, 땅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으로 그의 강한 육의 성향은 이미 그의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오르고글리오도 땅, 흙의 자식이다.

가장 위대한 땅이 비천한 어미였고,
 휘몰아치는 에올루스가 허세 떠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세상을 스쳐 지나는 자신의 숨을,
 어미의 움푹한 자궁에 은밀하게 불어넣어,
 그 숨겨진 동굴을 폭풍 같은 바람으로 가득 채워
 임신시켰다. 여자의 자궁이 해산하는
 정해진 때 그 어미는 몸을 떨며,
 공허한 바람으로 잔뜩 부풀고 범죄로 가득 차 더러운
 이 괴물 같은 진흙덩어리를 출산했다.

The greatest Earth his vncouth mother was,
 And blustering AEolus his boasted syre,
 Who with his breath, which through the world doth pas,
 Her hollow womb did secretly inspyre,
 And fild her hidden caues with stormie yre,

That she conceiu'd; and trebling the dew time,
 In which the wombes of wemen do expyre,
 Brought forth this monstrous masse of earthly slime,
 Puft vp with emptie wynd, and filld with sinfull cryme.
 (1.7.9)

오르고글리오의 수태와 출산과정은 창세기 2장에서 야훼가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의 일종의 패러디이다. 야훼가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든 후에 숨을 불어 넣어 생명이 있는 피조물로 창조하였는데, 오르고글리오도 인간처럼 흙에서 태어났고 야훼의 영 대신 자연의 바람이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겨났다. 그는 창조주와는 관련이 없이 자연의 힘에 의해 생겨난 존재이다. 따라서 그는 영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거나 앗기우고 오직 육의 덩어리와 그 욕망과 성취만이 남아 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상태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오르고글리오는 “죄 많은 기사 자신의 일종의 투영”(King 212)으로, 레드크로스과 오르고글리오의 만남은 레드크로스가 육적으로 가장 타락한 자신과 조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자신의 힘을 건방지게 과신하며 / 다른 모든 힘과 기사의 무용을” (through presumption of his matchlesse might, / All other powres and knighthood, 1.7.10.3-4) 업신여기는 “교만한 거인”(Gyaunt proud, 1.7.argument 2) 오르고글리오는 인간적인 힘과 성취를 과신하며 방만한 태도로 육적 쾌락에 빠져있던 레드크로스의 또 다른 자신인 것이다.

이렇게 육의 교만에 계속 빠지면서도 레드크로스는 그 상황들 자체에 대해 무지했다. 이 점은 레드크로스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보다는 우나의 설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우나는 레드크로스가 자신과 헤어져 오르고글리오에게 사로잡히게 된 상황을 아더(Arthur)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말 완전히 모르는 사이, 어느 나쁜 마술사가
 그분 정신을 속여,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제 정절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

거대하고 키 큰 거인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방심하고, 쇠락한 그분을
모르는 사이에 덮쳐, 그 무자비한 괴물을
 강력한 철퇴로 그분을 넘어뜨렸습니다.

Till all vnweeting, an Enchanter bad
 His sence abusd, and made him to misdeeme
 My loyalty, not such as it did seeme

· · ·
 Gyaunt huge and tall,
 Who him disarmed, dissolute, dismaid,
Vnwares surprised, and with mighty mall
 The monster mercilesse him made to fall,
 (1.7.49.3-5, 52.2-5) (밀줄은 필자 강조)

우나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레드크로스는 우나와 헤어질 때에도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르고글리오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결여는 자신에 대한 인식 결여와 직결된다. 우나는 이 상황들에서 레드크로스를 변호하고 아키마고와 오르고글리오에게 탓을 돌리기 위해 그의 무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의 자기인식의 결여를 역설적으로 두드러지게 한다. 레드크로스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선을 행하려는 의지조차도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죄와 잘못에 빠진 것이다.

레드크로스가 홀로 오르고글리오의 토굴 속에서 직면하는 것은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죽음만이 구원인 듯한 상황이다. 그가 이제 자신이 죽음 외에 구원의 희망이 없는 “저주스런 어둠”(1.8.38.5) 속에, 완전한 자기 무지 속에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육으로부터의 구원은 전적으로 신의 은총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레드크로스는 육의 감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죽음이라는 행복한 선택”(happy choyce / Of death, 1.8.38.3-4)을 갈망한다.

레드크로스는 신의 은총을 상징하는 아더 덕분에 9개월간의 죽음과 같은 오

르고글리오의 토굴 생활에서 구출되지만, 그 상황에서 그의 외적인 구원보다 더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내적인 구원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무지로 인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가책과 회한으로 인해 남몰래 괴로워하면서 그 내면을 하나하나 성찰하는데, 그 밑바닥에서 대면하는 것을 자신 안의 최대의 악, 절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은 레드크로스가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자기 무지 속에서가 아니라 육의 한계에 갇혀 살아온 비참함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직면하는 상황이다. 절망과 나누는 대화에서 절망이 “명민한 정신”(sudeine wit, 1.9.41.1)으로 레드크로스의 양심을 찌르며 조목조목 지적하는 지나간 잘못들은 모두 그가 아마도 오르고글리오의 토굴 속에서 자신 안에서 발견한 것들일 것이다. 이제 그가 명확하게 보게 된 “비참한 인간”(wretched man, 1.9.45.1)인 자신의 죄의 실상들은 인간 존재와 삶이 무가치하다는 의식과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킨다. 아직 그는 그리스도교 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신과의 관계에 대한 체험과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의 실천 행위의 경험들이 없다. 따라서 신과의 관계에서 본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다. 이 상황에서는 절망이 강조하는 “영원한 운명의 책”(eternall booke of fate), “강력한 필연”(strong necessitie), “운명이 정한 죽음”(the death ordaynd by destinie)이 지배하는 인간의 지상에서의 육적인 삶(1.9.46)의 노고, 질병 그리고 죄에 대한 벌 등이 신의 섭리와 자비에 대한 희망을 능가한다.

레드크로스는 이제 죽을 인간인 “죄인”(man of sin, 1.9.46.1)으로서 비참함과 타락의 실상을 알고 되지만 그의 자기성찰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절망이 마지막 자살 권유에서 사용하는 돈호법(“die soone, O faeries sonne, 1.9.47.9)을 살펴보면, 절망은 레드크로스를 “페어리의 아들”이라 부르며 자살을 권유한다. 절망을 레드크로스의 또 다른 자아라고 보면 결국 그는 여전히 자신의 참된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성결의 집(house of Holinesse)에서 밝혀지듯이, 그의 신원은 페어리의 아들이 아니고 원래 색슨 왕의 아들이므로, 아직 페어리의 아들이라 불리는 레드크로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기인식에 있어서 여전히 불완전하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임무의 궁극적인 영적 차원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싸

우겠다고 호언장담한 전투”(the battaile, which [he] vaunst to fight, 1.9.52.8)인 용과의 싸움도 잊어버린 채 절망에 빠져 버린 것이다.

IV. 관상: 자기인식의 완성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으로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는 레드크로스를 구해주는 것은 우나의 가르침이다. 우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육적인 사람”(fraile, feeble, fleshly wight, 1.9.53.1)인 레드크로스에게 신의 심판보다 자비에 의탁해야하는 선택된 사람으로서 그의 소명을 일깨우며 그가 절망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도록 인도한다. 육적인 인간의 한계를 밀바닥까지 경험한 레드크로스가 겸손(Humiliá)의 자세로 (1.10.5) 성결의 집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은 그가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신과의 관계에서 본 자신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 자신의 임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깨닫도록, 즉 완전한 자기인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는 성의 여주인 실리아(Caelia)와 그 딸들인 피델리아(Fidelia), 스페란자(Speranza), 카리싸(Charissa) 그리고 다른 여러 인물들이 인도하는 그리스도 교식 영적 정화 훈련을 통해 그동안 행한 악습을 살피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고행을 하며 영육을 치유한다. 그리고 그는 성경과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공부와 자선 행위 실행 등을 통해 이 영적 훈련에서 최고 단계인 관상에 도달한다.

관상은 영적인 시각으로 지상에서 천국의 상태와 신을 관조할 수 있는 단계로, 레드크로스는 이 관상의 비전속에서 우선 지상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러자 거룩한 노인이 말했다. 진정 사실이네.
 하지만 클레오폴리스는 지상의 건축물,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
 불멸의 명예의 책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갈망하는 고귀한 이름의 모든 기사들에게

아주 어울리는 곳이라,
 그들은 자주 그곳에 가서, 그 영광을 하사하시는
 저 여 군주를 섬긴다네.
 그분은 천상의 자녀라 천국이 당연히 자랑하실 분네.

Most trew, then said the holy aged man;
 Yet is Cleopolis for earthly frame,
 The fairest peece, that eie beholden can:
 And well beseemes all knights of noble name,
 That couett in th'immortall booke of fame
 To be eternized, that same to haunt,
 And doen their seruice to that soueraigne Dame,
 That glory does to them for guerdon graunt:
 For she is heuently borne, and heauen may iustly vaunt.

(1.10.59)

레드크로스가 처음 모험을 시작할 때 열망한 것은 글로리아나 여왕을 섬기는 명예였다. 이제 그는 관상 속에서 지상의 것들을 조망하며 그 명예가 단지 지상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 속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클레오폴리스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구현된 가장 아름다운 곳이므로, 그 여왕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지상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차원의 명예, 즉 영적인, 천상적인 차원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사로서의 명예추구라는 지상적 목적이 가지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인식하고 그 명예를 천상적 차원에서 추구할 때, 그는 성결의 기사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관상 속에서 얻은 이와 같은 자각은 레드크로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험들이 죄와 잘못으로 점철된 무의미한 욕의 만족만은 아니었다는 위안을 줄 수 있고, 이후 모험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리아나가 천상과 연결된 존재하는 것, 즉 지상의 명예와 권세가 천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랑한다”(vaunt, 9)는 마지막 표현은, 지상의 것들에 궁극적으로 함축된 허세와 과시의 뉘앙스를 풍기며 그 가치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게하고, 지상의 임무가 아무리 영적인 의미로 추구된다할

지라도 순전하게 천상적 일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지는 관상의 기도 속에서 레드크로스는 자신이 페어리 나라 출신이 아니라 잉글랜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의구심대로, 그는 기사가 추구하는 “이름을 날리는 승리”(famous victory, 60.5)와 “지상의 정복”(earthly conquest, 7)이란 결국 죄와 슬픔을 낳는 피의 결과물(9)이므로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예정된 복된 목적지”(ordained a blessed end, 1.10.61.5)는 클레오폴리스가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에릭슨도 지적했듯이(Wayne Erickson 97), 『페어리 여왕』 전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요 도시로 묘사되는 글로리아나의 클레오폴리스는 뛰어난 기사들의 업적들을 아무리 자랑한다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업적들은 불완전한 것이다. 지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페어리 여왕의 총애를 구하는 것이 기사에게 매우 맞맞은 일이지만 이 지상적 추구는 여전히 죄와 관련이 없을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사는 그 지상의 명예와 총애를 추구하는 일로 지상의 삶을 소진해서는 안 되고 천상의 명예를 추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깨달음과 더불어 레드크로스는 그의 사명인 신과의 관계 속에 예정된 길에서 도달해야 할 자신의 진정한 궁극적 신원은 단순히 페어리 왕국의 지오르고스가 아니라 잉글랜드의 “성 조오지”(Saint George, 9)이며 “자기 자신의 나라의 친구요 수호자”([his] owne nations frend / And Patrone, 7-8)가 될 것을 알게 된다. 이제야 진정으로 개인적,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himselfe he gan to fynd, 1.10.67.1). 이미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된 그가 이제 자신을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화자의 설명은 자기인식이 한번으로 완전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을 통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성결의 집에서 영적인 정화를 통해 관상이라는 최고의 영적 상태에 도달한 레드크로스는 지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명, 그 소명의 영적인 가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참된 신원 등을 깨닫는다. 타락한 비참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에서 시작하여 관상적 비전을 통해 얻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성결의 덕을 구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총체적 자기 인식이다.

성결의 집에서 자신의 영육의 힘을 온전히 회복한 레드크로스는 용과의 싸움에서 세례의식을 거쳐 온전히 새로 태어나고 용을 무찌르고 자신의 지상적, 영적 임무를 완수한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듯이, 그는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성결)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Ephesians 4.24)이 된 것이다. 이제 그는 성결의 덕을 완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는 성결의 기사로서 자기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시험을 받는다. 변장한 아키마고를 통해 두에씨는 우나와의 약혼식을 앞두고 있는 레드크로스를 혼인 방해간음죄와 같은 죄목으로 고발한다. 레드크로스가 용도 무찌르고 우나와의 약혼식의 성혼 선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 일화는 1권 전체 서사 구조와 성결의 알레고리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랑의 멜로드라마” 속의 위기의 한 장면(Rose 153)이나 아키마고와 두에씨의 사악한 치졸함을 부각시키는 일화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일화는 성결의 알레고리적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 있게 다루어지거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드크로스가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레드크로스와 우나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시도와 그 시도에 대한 두 사람의 대항은 1권에서 진행된 성결의 전체 모험을 완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성결의 모험의 전 과정은 신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철저히 인식하고 다시 신과 결합하는 체험을 통하여 신과 자신에 대해 온전히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과정이다. 인간이 신에게서 멀어진 첫 원인은 선악과에 대한 육적인 무절제라기보다 신의 계명을 어긴 것, 즉 신과의 관계에서 그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신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버린 아담의 행위는 레드크로스에게서 “악마의 간계에 속아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돌아선 것”(Calvin 2.1.4), 즉 아키마고의 간계에 속아 우나를 버리고 두에씨에게 빠져 우나에 대한 사랑의 신의를 버린 행동으로 나타난다. 레드크로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우나와의 사랑의 신의를 회복한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레드크로스의 성결이 가장 잘 시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황은 신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신의를 시험당하는 순간이며, 그동안의 모험의 질곡을 통해 레드크로스가 얻은 자기인식이 실제로 잘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에씨의 고발은 그가 용을 쳐부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승리를 거두

었다할 지라도 다시 욕의 유혹이나 간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시사한다.

두에씨는 아키마고를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자신을 “슬픈 처녀, 아니 차라리 슬픈 과부”(sad mayd, or rather widow sad, 1.12.27.1)라고 소개하며 레드크로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두에씨의 주장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레드크로스가 그녀와 결혼 언약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레드크로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며 쌓아온 명예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위협적인 고발과 의심 앞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담백한 어조로 매우 진솔하게,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설명한다.

최근까지 제가 이곳으로 여행하다가,
운 나쁘게, 저도 모르게 제 길에서 벗어나
낮설고 힘든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피테씨라는 이 거짓에 찬 여자를 발견했는데,
아니 오히려, 발견을 당했는데, 지상에서 가장 거짓스런 피테씨
는
가장 거짓스런 두에씨인데, 화려한 왕족 차림을 하고,
너무도 허약하여 어두워진 시각을 쉽게 속여,
지상 인간의 기술이나 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기만적이고 강한 사악한 마술과 교활한 재주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사악한 뜻에 따라 저를 움직였습니다.

It was in my mishaps, as hitherward
I lately traueild, that ynwares I strayd
Out of my way, through perils straunge and hard

There did I find, or rather I was fownd
Of this false woman, that *Fidessa* hight,
Most false *Duessa*, royall richly dight,
That easy was t'inueigle weaker sight:
Who by her wicked arts, and wiely skill,

Too false and strong for earthly skill or might,
Vnwares me wrought vnto her wicked will,
 (1.12.31.6-8, 32.1-5, 8) (밑줄은 필자 강조)

우나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사위가 될 청년의 추문은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다. 두에씨의 편지는 누구든 레드크로스를 “의심에 찬 눈으로”(With doubtfull eyes, 1.12.29.6) 바라보게 하며 그를 “의심 받는 기사”(Redoubted¹⁰ knight, 7)로 만들 충분한 근거가 된다. 자신에 대한 의심 앞에서 레드크로스는 앞서 우나가 아더에게 레드크로스의 상황을 설명할 때 두 번 사용한 “자신도 모르게”라는 표현을 똑같이 두 번 사용하며 아키마고와 두에씨에게 속은 상황을 알려주고, 과거의 모든 불운한 일들이 자신의 무지와 관련이 있음을 매우 진솔하게 밝힌다. 그가 이렇게 명료하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결의 집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무지로 인한 죄와 잘못을 회개, 정화하였고 초월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관상의 체험을 거쳤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두에씨를 “발견했다”는 것 뿐 아니라 그녀에 의해 “발견 당했다”는 상황 설명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는 두에씨의 관계가 전적으로 그녀의 사악한 뜻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 자신도 그 잘못에 책임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 그리고 두에씨의 거짓되고 기만적인 행실을 알아보기에는 역부족인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저지른 부족함과 잘못, 또 두에씨의 잘못을 토를 달거나 변명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표현한다. 레드크로스의 이러한 적나라한 고백은 그가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성적인 욕망의 간교함과 육적인 유혹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레드크로스는 그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나와의 관계에서는 자기 통제와 자기인식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 온 백성의 축하와 기쁨 속에 우나와 결혼을 약속하는 성대한 약혼식을 치르고, “그의 마음은 복합적인 갖가지 즐거움으로 녹아나

10) “Redoubted”는 여기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단한 무서운”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doubt의 말놀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여기서는 “의심을 받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는 듯하였다”(His heart did seeme to melt in pleasures manifold. 1.12.40.9). 이렇게 그는 우나와의 사랑의 즐거움과 유희가 주는 “지극히 복된 기쁨의 저 바다에서 헤엄치지만”(Yet swimming in that sea of blisfull ioy, 1.12.41.5) 두에싸를 만난 샘가에서나 절망을 만난 동굴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의 바다에서”(In sea of deadly daungers, 1.12.17.6)처럼 자신을 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vnweeting, 1.7.6.1)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다. 그는 용을 죽인 후 페어리 여왕에게로 돌아가기로 맹세한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않고”(nought forgot, 1.12.41.6) 결혼의 행복과 기쁨에 대한 갈망을 통제하며 신에게로 인도하는 자기인식의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V. 글을 나가며: 자기인식의 지속

성결은 근본적으로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그 인식은 한 번의 관상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성결을 얻었지만 아직은 그 완성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 것(Philippians 3.12)이 바로 “성결의 역설적인 성격”(Heale 20) 때문이다. 이 성결의 역설은 레드크로스의 성결을 1권에서 완결시키려고 시도하는 『페어리 여왕』의 서사적 완결성과 미 완결로 결말을 끝없이 열어놓으려는 로맨스적 내러티브 간의 역동성으로 지속된다. 레드크로스의 주인공으로의 모험은 1권에서 끝나지만 성결의 덕은 하나의 과업 완수로 결코 완결되어 끝나는 덕이 아니므로, 그는 이후의 모험들에서도 등장한다. 2권 서두에서 레드크로스는 아키마고의 간계로 가이연(Guyon)과 오해 속에 조우하는데, 이 일화는 성결을 이룬 그의 자기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레드크로스를 알아본 파머(Palmer)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화해하고, 파머는 “[레드크로스가] 이룬 최근의 가장 힘든 공적”(late most hard atchieu'ment by [him] donne, 2.1.32.2)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자 레드크로스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공덕이 아니고 자신은 다만 “그분 권능의 도구”(the organ of his might, 2.1.33.3)일 뿐이며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이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그가 용을 쳐부순 업적이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점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인간의 역량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3권에 등장한 레드크로스는 여전히 욕욕의 유혹에 연약함을 보여준다. 그는 즐거움의 성(Castle Ioyeous) 앞에서 우나 대신 그 성의 기쁨의 숙녀(Lady of delight), 말카스타(Malecasta)를 택하기를 강요하는 6명의 기사와 싸우며 대항하기도 하지만, 성에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성적인 유희와 유혹에 능한 말카스타의 환대에, 두에씨의 성적 유혹을 당할 때처럼 곧 갑옷과 무기를 벗어버린다(3.1.42.6). 말카스타가 레드크로스가 아니라 동성인 브리토마트(Britomart)에게 빠져 있어 다행히 그는 욕욕에 의한 타락의 위험에 다시 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밤중에 브리토마트의 방에서 들리는 말카스타의 비명소리와 싸움 소리에 반쯤 무장해제 한 상태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그가 성적 유혹에 노출될 때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펜서는 그의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 독자에게 육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또한 성결의 덕에서 중요한 인간의 자기인식은 절제의 덕에서도, 정결의 덕에서도 중요하며 종말론적 완성을 향하여 계속되는 것임을 독자에게 알려준다.

『페어리 여왕』의 1권은 종교적인 윤리덕을 다루고 있지만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신학적 차원 등에서 복잡한 알레고리를 담고 있기에, 자기인식이라는 하나의 렌즈로 레드크로스의 모험들을 조망하며 해석하는 것은 그 여러 차원의 의미들을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결은 신과 관계에서 성취되는 지극히 내적이고 사적이며 개인적인 덕으로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매우 관계가 깊은 덕이다. 스펜서는 1권에서부터 서양 윤리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자기인식을 덕의 근본으로 삼아 독자가 자신을 등장인물들과 동일시하도록 이끌어 작품의 교육적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 여러 차원의 알레고리들에도 불구하고, 레드크로스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고통을 받으며 평범한 일상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그래서 [독자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우리의 희생양”(Berger 61)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신과의 관계에서 조망할 때 드러나

는 그의 자기인식의 문제는 곧 스펜서가 성결의 알레고리를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독자의 자기인식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개인 독자의 『페어리 여왕』의 1권 읽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1권을 자기인식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덕인 성결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인 용 문 헌

- Berger, Harry, Jr. *Revisionary Play: Studies in the Spenserian Dynamic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 Blythe, Joan Heiges. "Spenser and the Seven Deadly Sins: Book I, Cantos IV and V." *ELH* 39 (1972): 342–52.
- Calvin, Jea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Tr. Henry Beverage. Web. 23 Feb 2015. <<http://www.ccel.org/ccel/calvin/institutes.i.html>>.
- Cory, Therese Scarpelli. *Aquinas on Human Self-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P, 2013.
- Erickson, Wayne. *Mapping The Faerie Queene: Quest Structures and the World of the Poem*. New York: Garland, 1996.
- Foucault, Michel. "Technologies of the Self." Ed. Marin, Luther H., Huck Gutman, and Patrick H. Hutton.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London: Tavistock, 1988. 16–49.
- Hadfield, Andrew. "Spenser And Religion—Yet Again."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51 (2011): 21–46.
- Heale, Elizabeth. *The Faerie Queene: A Reader's Guid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P, 1999.
- King, John. "Spenser's Relig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enser*. Ed. Andrew Hadfield. Cambridge: Cambridge UP, 2001. 200–16.
- Lambert, Richard Thomas. *Self Knowledge in Thomas Aquinas: The Angelic Doctor on the Soul's Knowledge of Itself*. Bloomington, IN: Authorhouse, 2007.
- Leslie, Michael. *Spenser's "Fierce Warres and Faithfull Loves": Martial and Chivalric Symbolism in The Faerie Queene*. Totowa, NJ: Brewer and Barnes & Nobles, 1983.
- McCabe, Richard A. "Ireland: Policy, Poetics and Parody." *The Cambridge*

- Companion to Spenser*. Ed. Andrew Hadfield. Cambridge: Cambridge UP, 2001. 60–78.
- Milton, Joh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Ed. Merritt Y. Hughes. New York: Macmillan, 1957.
- Morgan, Gerard. “‘Add faith vnto your force’: the Perfecting of Spenser’s Knight of Holiness in Faith and Humility.” *Renaissance Studies* 18 (2004): 449–74.
- Padelford, Frederick Morgan. “Spenser and the Theology of Calvin.” *Modern Philology* 12 (1914): 1–18.
- Rose, Mark. *Spenser’s Art: A Companion to Book One of The Faerie Queene*. Cambridge, MA: Harvard UP, 1975.
- Schollner, Rolf. *Shakespeare’s Patterns of Self-Knowledge*. Columbus, OH: Ohio State UP, 1972.
- Spenser, Edmund. *The Faerie Queene*. Ed. A. C. Hamilton. Rev. 2nd ed. London: Pearson Longman, 2007.
- Summit, Jennifer. “‘Bequeathed Care’: Rethinking Spenser’s Contemplation.” *Spenser Review* 41 (2011): 1–10.
- Waller, Gary. *Edmund Spenser: A Literary Life*. New York: St. Martin’s, 1994.
- Whitaker, Virgil K. “The Theological Structure of *The Faerie Queene*, Book I.” *ELH* 19 (1952): 151–64.

Abstract

Book 1 of *The Faerie Queene*: Holiness and Self-knowledge

Lee, Jin-A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explores that self-knowledge is fundamental to the virtue of holiness in Book 1 of *The Faerie Queene*, illuminating Redcross knight's adventures in the light of self-knowledge.

“Know yourself,” the Delphic motto wa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moral principle to be observed when one sought his or her relationship with gods in the ancient western world. Christianity also considers self-knowledge as essential to a Christian's union with God. Redcross starts his journey as a nominal Christian knight and a fairy in ignorance of his true identity. Boasting his fleshly might, he pursues earthly fame and honor in his chivalric task. All his natural strength and virtues are gradually exhausted in the process of his mission, especially by his confrontations with the three chief enemies, carnal desires (Duessa), worldly self-exultation (House of Pride and Orgoglio), and despair (Despaire). Eventually he is driven to an impasse, in which he clearly sees the total depravity of his own nature as a human, namely what he is in front of God. After purified and disciplined physically and spiritually in the House of Holiness, he finally finds the spiritual value of his earthly knighthood and his true identity and mission as Saint George of England. Becoming a self-knowing Christian, he conquers the dragon, and continues his knightly adventures as the champion knight of holiness in the fairy land.

Key Words: Edmund Spenser, The Faerie Queene, Redcross,
Self-knowledge, Jean Calvin.
에드먼드 스펜서, 페어리 여왕, 레드크로스, 자기인식, 장
칼뱅.

논문접수일: 2015.05.11

심사완료일: 2015.06.21

게재확정일: 2015.06.21

이름: 이진아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이메일: jinah@hufs.ac.kr

